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촘촘해진다... '냉동 고등어' 등 5개 품목 추가

- 6. 29.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국민이 즐겨 찾는 대중성 어종 관리강화로 먹거리 안전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29일(월)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22개 품목의 지정기간을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새롭게 냉동고등어 등 5개 품목을 추가 지정하였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수산물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통관 단계 이후부터 최종 판매 이전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통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국민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의 유통이력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여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기존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던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기간은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됐으며,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 품목이 추가 지정되었다. 이로써 전체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은 기존 22개에서 27개로 확대 운영된다\*.

\* 5월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발표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입수산물 양도 후 5일 이내에 전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http://www.nfqs.go.kr>)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지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지용 (051-773-5940)
		담당자	사무관	김범규 (051-773-541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종모 (051-400-5750)
		담당자	사무관	김덕균 (051-400-5795)

